

2) 신앙결사(信仰結社)의 유행

문종대에 완숙하였던 고려문화는 예종대를 거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기운은 불교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종대에는 문신귀족과 결합된 교종불교가 청담적(淸談的)이고 은둔적 성격을 갖춘 거사(居士)불교로 나타났으며, 선종불교가 서서히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고 있었다.

고려 중기에 문벌귀족 출신인물 가운데 거사로서 유명했던 사람은 이자현(李資玄)·이오(李顥)·윤언이(尹彦頤)·곽여(郭瑗) 등이다. 특히 이자현은 관직을 버리고 속세를 벗어나고자 임진강을 건너면서 스스로 맹세하기를, “이번에 가면 다시는 경성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였다.¹⁾ 그가 다시 개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것은 이자의(李資義)가 왕실을 압도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등, 문벌귀족사회의 비리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닥칠 사회모순을 예견하였기 때문이다. 이자현만이 아니라 당시 문벌귀족이 거사불교에 빠지는 모습은 대체로 이런 것이었다.²⁾

이자현은 청평산(淸平山)에 은둔하여 있으면서 특히 선 수행에 관심을 두어, 예종에게 『심요(心要)』를 저술하여 올렸다. 그것은 선종사상을 다룬 저술이며, 천기어록(禪機語錄)도 선종사상에 관한 것이다. 청평산에서 이자현의 생활은 선 수행에 가까웠고, 그러한 경향은 다른 거사들도 마찬가지였다.³⁾ 당시 거사들은 문벌귀족사회의 비리를 예견하고, 그것과 연계된 교종불교에서 벗어나려고 선종에 빠져들었지만, 거기에서 미련 없이 떠나지는 못하였다.

거사불교는 비슷한 시기에 선종사상을 서서히 퍼져나가게 했다. 그리하여 혜소(慧炤)국사는 선종승려로서 예종대에 크게 활약하였다.⁴⁾ 혜소는 굴산문(掘山門)에 속한 승려로서 그의 제자인 탄연(坦然)·지인(之印)은 물론, 영보(英甫)와 영보의 법사(法嗣)로 뒤에 용문사(龍門寺)를 중창한 조응(祖應), 조응의 법사인 자엄(資嚴) 등이 모두 굴산문 승려였다.⁵⁾ 그런데 탄연 등은 그 비가 1172년 건립될 당시 조계종에 소속됨으로써 혜소의 문도는 바로 조계종으로 그 맥이 이어졌다. 예종대 선종의 활동은 수선사(修禪社)계 선승들과 법맥이나 사상면에서 연결이 가능하고 조계종이 발전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⁶⁾

이러한 산중(山中)불교의 등장은 신앙결사를 유행시켰다. 물론 의천이 국청사(國淸寺)에서 천태종을 개창한 정신도 결사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진정한 의미의 결사는 인종대 이후에 주로 이루어졌다. 수정사(水淸社)나 반룡사(盤龍社)·수암사(水巖寺) 등의 결사가 이를 알려준다.

수정사는 지리산에 있던 절로 폐사(廢寺)된 오대사지(五臺寺址)에 세워졌으며, 1123년(인종

1) 金富澈, 『淸平山文殊院記』, 『叢文選』 권64에 “棄官逃世 行至臨津 過江自誓曰 此去不復入京城矣”라 하였다.

2) 김두진, 『高麗時代 思想의 歷史의 特徵』, 『傳統과 思想』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65쪽.

3) 李仁老, 『補閑集』上(『高麗名賢集』2,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73, 112~330쪽)에 “尹文康公彦頤 晩節尤嗜禪味 退居鈴平郡金剛齋 自號金剛居士”라 하였다. 그의 金剛經을 좋아한 李顥나 龜山寺에서 曇秀禪師와 같이 교류한 郭瑗도 오히려 禪修行에 매료되어 있었다.

4) 『고려사』, 睿宗世家에는 당시에 크게 활약한 禪僧으로 曇眞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慧炤국사와 같은 인물로 추론되기도 한다.

5) 金映遂, 『曹溪禪宗에 就하여—五教兩宗의 一派, 朝鮮佛敎의 根源—』, 『震檀學報』9, 1938, 162~163쪽.

6) 金相永, 『高麗 睿宗代 禪宗의 復興과 佛敎界의 變化』, 『精溪史學』5, 1988, 83~86쪽.

1)에 짓기 시작하여 1129년에 준공을 보았다.⁷⁾ 사주인 이진억(李津億)은 비서감(秘書監) 성(晟)의 아들인데, 현화사(玄化寺) 혜덕(慧德)왕사에게 수학하고 26세에 대선(大選)에 합격하였다. 수정사에는 선강원(禪講院)의 고승과 무려 3,000명에 이르는 일반신도가 입사하여 있었다. 반룡사는 고령(高靈)의 미숭산(美崇山)에서 결사되었으며, 수암사의 결사는 고성(固城)에서 이루어졌다. 그 창건된 구체적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개 명종에서 강종연간일 것으로 추정된다.⁸⁾ 반룡사는 승통 요일이 개창하였고, 특히 수암사는 박문비(朴文備)가 고성의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화엄결사를 개창하였다. 비록 이런 결사가 교종불교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곳에서는 염불(念佛)을 통한 정토(淨土)신앙과 아울러 선 수행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무신란 이후 무인집권자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선종 중심의 결사가 성행하였다. 무신들은 문벌귀족 및 그들과 밀착된 교종불교세력을 억압하여 거세한 다음, 자기 세력기반으로 지금까지 교종세력에 눌러 지방의 산중에 명맥만을 유지해온 선종세력으로 눈을 돌렸다. 다음 기록을 참고하기로 하자.

공(최충헌)은 대안(大安) 3년(1211)에 성의 동남에 있던 창복사(昌福寺)를 구하여, 이를 넓혀서 새롭게 했다. 금상(高宗)이 즉위한 지 2년에 장차 크게 총림(叢林)을 열어 심법(心法)을 천양(闡揚)하고자 했다.⁹⁾

무신들이 일으키려는 선종결사는 대체로 그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그만 고사(古寺)에서 있었다. 최충헌은 개성 동남쪽에 있던 옛 사찰인 창복사를 구입하여 새로 넓히고 크게 선방을 열었다. 무신란 발발 직후에 정중부도 개경의 주요 선종사찰인 보제사(普濟寺)를 새로 고쳐 낙성회(落成會)를 열었다. 당시 무신들이 산중에 전해오는 선종계의 절을 구입하여 중흥시킨 것은 사회일반의 분위기였다.¹⁰⁾ 고려 후기에 이르면 무신정권 밑에서 길러져서 다시 등장하는 문신들이 불교의 결사운동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곧 김영의(金令義)는 소림사(小林寺)를 창건하여 거기에 거처하였다.¹¹⁾ 수선사나 백련사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 속에서 결성되었다.

7) 權適, 「智異山水精社記」, 『東文選』64; 『新增東國輿地勝覽』권30, 晋州牧, 佛宇 五臺寺條.

8) 秦星圭, 「高麗後期 修禪社의 結社運動」, 『韓國學報』36, 一志社, 1984, 11~14쪽.

9) 李奎報, 「昌福寺談禪牘」, 『東國李相國集』 권25에 “公大安三年 得古昌福寺於城之東南 遂拓而新之 今上卽祚之二年 將大闢叢林 闡揚心法”이라 하였다.

10) 金두진, 「고려시대 사상의 역사적 특징」, 『원통과 사상』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67쪽.

11) 林椿, 「小林寺重修記」, 『西河集』 권5.